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 개최

14개 종목, 70명 수상



▲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7월 8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5월 8일 열린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0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

해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기능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4개 직종 1~3위에 오른 입상자 전원에게는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해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입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택과 함께 상금, 대회장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고, 국내외 산업연수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직종별로는 건축배관 분야에 서판기[대영기계설비(주)]를 비롯한 14명이 1위를 차지했다.

건축배관과 전기용접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건축배관

입상순위	성명	소속회사	시·도회
1	서판기	대영기계설비(주)	광주·전남
2	이윤근	(주)유경기업	부산
2	조동화	중원설비(주)	서울
3	전종세	(주)성두이엔씨	인천
3	최봉열	(주)디오이	경기
3	석종성	동방기공(주)	충북

△ 전기용접

입상순위	성명	소속회사	시·도회
2	박홍구	(주)세방테크	서울
3	박병식	(주)유일기업	충북
3	이경희	윤창기공(주)	서울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 영광의 건설기능인들

**이윤근 (주)유경기업**  
[건축배관 2위]

주인의식 가지고 시공할 때 만족스런 결과 도출



이윤근씨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보람을 느끼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항상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윤근씨는 “건설시공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공이 아닌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시공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공에 임할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의 힘든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젊은 기능공들이 양성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이윤근씨는 앞으로 많은 젊은 기능공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동화 중원설비(주)**  
[건축배관 2위]

시공하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성실·정밀히 작업



조동화씨는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회사에 감사드린다”며 “미천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고 밝혔다.

조동화씨는 “시공시 입주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누수 등 시공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정밀히 작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견문을 넓혀 회사와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조동화씨는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최봉열 (주)디오이**  
[건축배관 3위]

사용자와 협의를 통한 최상의 편리성 제공



최봉열씨는 “대한설비건설 협회로부터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봉열씨는 “시공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시공해야 한다”며 “시공 전 사용자와의 사전협의를 시공 중 긴밀한 조율을 이뤄 시공 후 사용자에게 최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접 기술사가 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싶다는 최봉열씨는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석종성 동방기공(주)**  
[건축배관 3위]

정확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해 완벽한 마감으로 하자 발생 억제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간 중 참가선수들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주고 격려해주신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힌 석종성씨는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두 아들에게 항상 도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석종성씨는 배관 시공에 있어 “기계설비배관은 건축물의 혈관과 같아 하자 발생 시 건물 본래 목적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시공을 통해 완벽한 마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능대회 수상자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현장기능인”이 목표라는 석종성씨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에 성실함을 더하고 있다.

**박홍구 (주)세방테크**  
[전기용접 2위]

완벽한 용접을 통해 하자 없는 시공이 최우선 과제



박홍구씨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을 통해 저에게 삶의 기쁨을 준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7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완벽한 용접을 통해 하자 없는 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박홍구씨는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건설현장의 경험도 쌓아 회사 뿐 아니라 업계에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박홍구씨.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박홍구씨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박병식 (주)유일기업**  
[전기용접 2위]

정확한 도면의 이해와 견고한 가접, 슬러그 등 이물질 제거가 부실시공 방지의 비결



박병식씨는 “건설기능경기 대회에 뛰어난 선후배 건설기능인들이 많이 참가해 수상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기쁘고 건설기능인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도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공방법을 터득한 후 견고히 가접하는 것이 부실시공 방지의 비결”이라고 밝힌 박병식씨는 “가접 후 슬러그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 역시 하자방지를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차후 개방된 건축물을 지어 생활의 안전함과 편리함, 아름다움 까지 공유하고 싶다는 박병식씨.

박병식씨는 그 꿈을 향해 오늘도 정진하고 있다.

**이경희 윤창기공(주)**  
[전기용접 3위]

최고의 기능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공



이경희씨는 “이번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 동료들과 대한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설비건설업에 종사하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자신감을 느낀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항상 최고의 기능인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공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경희씨는 “신속·정확·친절의 좌우명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시공이 가능하도록 실력을 더 갈고 닦을 것”이라는 이경희씨는 오늘도 기술을 연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